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드리진 열매들은 이웃에게 전달 합니다.
- 감사절 찬양예배는 저녁 7시부터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 최장수 허운정 선교사님(일본)께서 휴가 중,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 수능시험일이 17일(목)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한공협 정기 모임이 14일(월) 울진 봉평교회에서 모입니다.
- 장신대 신대원 2학년 학생들이 '교회밖 현장실천'으로 17일(목)-19일(토)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여 머뭙니다.
- 공동체 김장을 17일(목)-18일(금)에 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생활공동체 ( 감사 )  
이재훈 · 김다솔 가정 ( 떡 - 자녀 키워 주심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 결혼기념 )  
정연갑 · 이윤순 집사 가정 ( 추수 감사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 추수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46 호

2022년 11월 13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감사하며 삽시다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니 20년은 넘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6년 전에도 이 지면을 통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을 앞두고 식당을 예약하던 날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1년이 미뤄졌고 결혼 후에는 치료를 병행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완치 판정을 앞두고 2세를 계획하고 있던 때에 재발과 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이된 암은 커지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제자리에 암전히 있으며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sns를 통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늘 옆에서 같이 사시며 살뜰히 챙겨주셨던 친정어머니의 병환소식이었습니다. 암이 몸 여러 곳에 퍼져있고 원발성 암을 찾는 일이 시급하니 기도를 부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마음은 아픔을 넘어 낙심에 가까웠고 친구에게 뭐라고 전할 위로의 말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며칠 후 친구는 sns를 통해 다른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 <11월 4일 감사일기>

1. 엄마 암이 증상이 없었어서 늦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날 제 눈에 목에 혹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지인들 있음에 감사합니다.
3. 제가 엄마 병원 갈 때 같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 경험이 있어서 이 모든 일에 당황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이 일로 제가 아플 때 신랑과 가족들이 간호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이 덤덤히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고마움을 깨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템플턴 연구재단은 감사와 관련된 조사결과에서 '사람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잘 실천하지 못한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브라이언

엣킨스 박사는 '감사하는 연습이 두뇌 신경경로가 강화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감사할 때 엔돌핀이 나와 병을 낮게하고 활력을 갖게된다고 합니다. 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일주일만 지속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그 효과가 반년이상 지속된다고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성서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환자 열 사람이 예수님께 깨끗함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환자 열 사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눅 17:15~16)

열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병이 나아음을 확인했을 때 제일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병이 누구로부터 나아났는지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또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은 9명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되돌아오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깨끗함을 얻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덧 11월. 한 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하루지만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만 되돌아오지 않은 9명이 되지 말고, 병이 나아음을 알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나병환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시다. 더불어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어 소홀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루거나 잊지 말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진 않아도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주간의 말씀

“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  
< 시 56편 12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새훈 목사  
찬송 : 300, 415, (461)  
기도 : 백성복 집사  
성경 : 누가복음 14장  
제목 : 참 제자가 되는 길

#### 1. 내용: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서 교훈 하심 (What) <문단구분>

1절 ~ 6절 안식일에 수종병 앓는 사람을 고치시다  
7절 ~24절 잔치 자리에서 교훈  
25절~33절 제자의 길  
34절~35절 맛 잃은 소금

#### 2.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좇아 겸손하게 살아가자 (Why)

- 1) 이 땅의 것을 좇지 말고 하늘의 것을 좇아 살아가자.
- 2)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은 많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 3)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 3. 적용: 진정한 제자가 되자.(How)

- 1) 겸손은 자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이다.
- 2) 본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자.
- 3) 자기 부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자.

## 주일 예배에 가는 것

안녕하세요. 이어직 집사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 보니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어릴 적,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복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주말 쉬는 게 대다수이지만, 아버지께서 이랜드에 근무하셨을 때만 해도 당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어언 20년이 지나고 제가 주일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를 가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때도 많지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굳이 이런 길을 걸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말이지요. 거기에 교회를 못 가면 당연히 방송이라도 잘 봐야 하는데... 가끔, 아주 가끔 빼먹기도 합니다. 이런 저를 보면 과연 잘 사는 걸까요?

사랑방공동체에서 저를 볼 때마다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저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적으로 멀어질 때마다 가족, 친구, 공동체 식구 등을 통해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전화처럼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글을 쓰면 앞으로는 교회 출석을 잘하겠다고 해야겠지만,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교회 출석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고민을 또 하겠죠. 그러나 제가 사랑방공동체 소속인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을까 기도해봅니다.

사역공동체 이어직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00 : 1-5 인도자  
3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587, 59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시편 56편 설교자  
주님의 숨씨, 감사하세, 주 은혜 감사 사랑방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88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이돈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 공동기도문

한 해 동안 저희를 보살펴주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나를 공격하여 억누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아는 이 하나 없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들이 그를 공격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배웁니다.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다윗의 이 고백은 감사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서병욱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서울 망원시장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둘러보면서 솜사탕을 먹고 싶지만 꼭 참고 김밥이랑 떡볶이, 튀김, 어묵을 공유그릇에 담았습니다.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과 카페가 함께 쓰는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에 담아 산 음식은 카페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용이 많지 않아서 인지 그릇이 적어 결국 튀김과 어묵은 쓰레기가 될 포장을 이용해 아쉬웠습니다. 카페에서 설거지 비용을 약간 지불하고 앞접시와 포크를 빌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알맹상점에 가서 각자 가져온 테트라팩, 망가진 전기케이블, 커피찌꺼기, 조각난 크레파스, 야채망 등을 잘 재활용해 달라 말기고 상점을 둘러봅니다. 큰 통에 담긴 주방세제와 그래놀라, 견과 등을 무게를 달아 집에서 가져 온 빈 통에 담습니다. 벌어져서 깨끗이 닦아 계속 쓸 수 있는 실리콘 빨대도 하나씩 고릅니다. 집에 가져간 후 쓰레기를 남기지 않을 장보기를 마치고 마을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돌아오는 차에서 오늘 한 일 중 기억에 남는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오늘 나들이를 쓰레기소탕작전이라 이름 붙여보지만 꾸러기들에게는 친구와 함께 논 놀이터와 맛난 먹거리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집에 가서 사온 것들을 먹고 쓰며, 즐거웠던 하루를 돌아보는 그 사이사이, 쓰레기 없는 지구를 위해 했던 사소한 시도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한 주간동안 비교적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이제 끝나가는 가을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한 주동안도 따뜻한 가을을 느끼며 잘 지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가을이 좋기는 한데.. 공동체학교 안에 나무들이 자라며 떨어지는 낙엽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월요일에는 고학년 중심으로 가로, 세로가 있는 윗 교실길

배움과 가르침

에 낙엽을 모으고 쓸어 담았는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새삼 또 한 번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다음주에도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어린이들이 썩 반기는 눈치는 아닙니다. ^^

목요일에는 하경임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일편지와 한 친구의 핸드메이드 케익으로 즐거운 생일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지난 주에 이어 안전교육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진과 선박사고, 풍수해체험과 생명존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운 어린이학교입니다~ ^^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추수의 계절인 아름다운 가을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5학년과 정재훈 선생님이 32박 33일의 유럽여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화요일 저녁부터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긴 여행으로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아파서 등교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지만 목요일 열린 수업 시간에 있을 여행 보고회를 열심히 준비하여 생생한 유럽 여행 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올해는 독일,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로 여섯 나라를 돌아보았고, 떼제와 부르더호프 공동체를 탐방하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소개를 목적으로 장구, 북, 징 등을 가져가 유럽 곳곳에서 풍물 공연을 하는 멋지고 대견하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고 돌아오니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의 폭이 더욱 커진 것이 벌써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5학년들이 돌아오니 학교가 짝 차고 멋쟁이들도 더욱 밝고 생기 넘쳐진 지난주였습니다~ ㅎㅎ

이번주 목요일은 수능 시험날입니다. 6학년 멋쟁이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결실이 잘 맺힐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컨디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 :)

< 교사 : 박예나 >

## 모든 것 주심 감사

나는 참 가진(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온전한 내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선 음악을 말하자면 공부를 한 것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잘 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도 한 때는 꽤 성공을 했었고, 바느질, 뜨개질, 매듭, 비즈공예, 빵과 쿠키, 강정 만들기 등등. 간단한 옷을 만들어 입을 때는 뿌듯했고 몇 년 동안은 비즈공예에 빠져서 우울한 마음을 달랠고 비록 기초과정만 배운 매듭이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천 마스크와 마스크 끈을 만들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과 먹거리들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을 때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샴푸, 비누, 화장품을 만들고는 돈을 아꼈다고 우쭐쪼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많이 바쁘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나는 즐긴다. 물론 아주 건강하진 못해서 가끔은 나무늘보처럼 늘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때는 충전의 시간! 친구들이나 공동체 식구들과 얘기를 나눌 때 못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나는 간단하게 '운전'이라고, 말한다.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쉬울 때가 참 많지만.

어릴 때에는 다 내 것인 줄 알았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 간다. 이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순간 순간 나를 공격해 오는 걱정들을 온전히 덮어버리는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어찌 다 표현할까?

요즘 광고에 나오는 '밀라논나'라는 패션디자이너를 보면서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곱게 늙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한다. 그가 삶을 축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과 재능들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네 발이 아닌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축제처럼 즐기고 나누고 싶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31, 38

성경 : 시편 108편 1-6절

말씀 : 감사드리며 찬양하립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하루빨리 완화되고 안정되어 중국 선교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중국 선교사님들의 삶이 위협 받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새터마을교회>

1)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데 건축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새터마을 식구들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재정과 일손을 부어주시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지체들이 회복되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2)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녁에 있을 찬양찬치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 <생활공동체 소식 >

입동을 지나면서 제법 바람에서 겨울 냄새가 납니다.

공동체 나무들의 나뭇잎은 이제 정말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낙엽이 되어 소복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쓰레기장에 오래 묵어있던 폐기물도 정리하고 주중에 낙엽도 모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낙엽과의 싸움입니다.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대대적인 야외 정리는 가을비로 인해 다음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항상 김장 때가 되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었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기온이 떨어질 모양입니다.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